

**여러분은 안식일 준수에 어떤 기대를 가집니까?** 안식일에 입은 각종 손해를 하나님이 갑절의 물질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없는 삶은 중심을 잃고 맙니다. 길에서 벗어난 줄도 모른 채 잘못된 길을 한참 동안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법과 사람에 관한 법 사이에 위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신앙과 삶 사이, 생각과 행동 사이를 이어 주는 끈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비추는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으며 바른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제7일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성’됩니다. 6일간의 창조와 제7일의 안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온전해지고 완성됩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좁은 시야와 세계관을 하나님 크기로 확장합니다.** 안식년을 맞아 밭과 포도원을 쉬게 하면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레 25:4). 그러나 회복된 땅으로부터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소산물이 맺힙니다. 안식은 ‘노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영, 혼, 몸으로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 없이 늘 소진될 뿐이라면, 우리 안팎은 인간의 목소리와 감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거룩한 날(Holy Day)이 노는 날(holiday)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미워 두었던 일을 해결하거나 취미 생활을 양껏 하는 날처럼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일상에서 ‘끄집어 내어지는 날’입니다. 과도한 업무, 가사 노동, SNS, 이메일, 스마트 기기, 각종 중독, 얽매인 루틴들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창조의 순리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나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 ① 내가 생각하는 안식(일)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 ② 나에게 안식일이 있습니까? 주로 무엇을 하며 보냅니까?